

▲ 2022 이케아 라이프 앳 홈(Life at Home) 보고서

한국 조사 결과 주요 하이라이트

본 자료는 2022 이케아 라이프 앳 홈(Life at Home) 보고서를 위해 진행된
설문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37개국 18세 이상의 일반인 37,405명 중
한국인 참여자 1,005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

집의 역할

일상의 가장 큰 걱정거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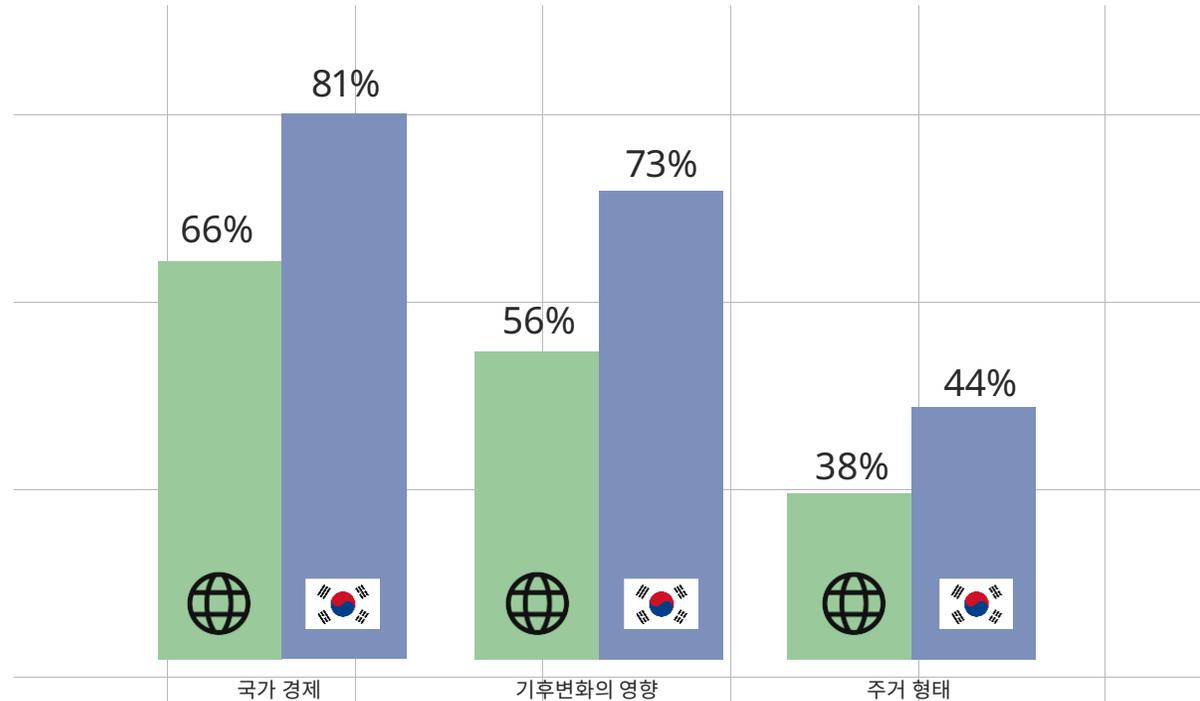
요즘 일상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,

국가 경제가 걱정된다고 대답한 한국 응답자는 **81%**,

기후변화의 영향이 걱정된다고 대답한 한국 응답자는 **73%** 였습니다.

글로벌 조사 결과 내에서도 한국은 국가 경제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우려하는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죠.

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만큼, 우리를 지켜주는 집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.



집의 역할

생활비 증가로 인한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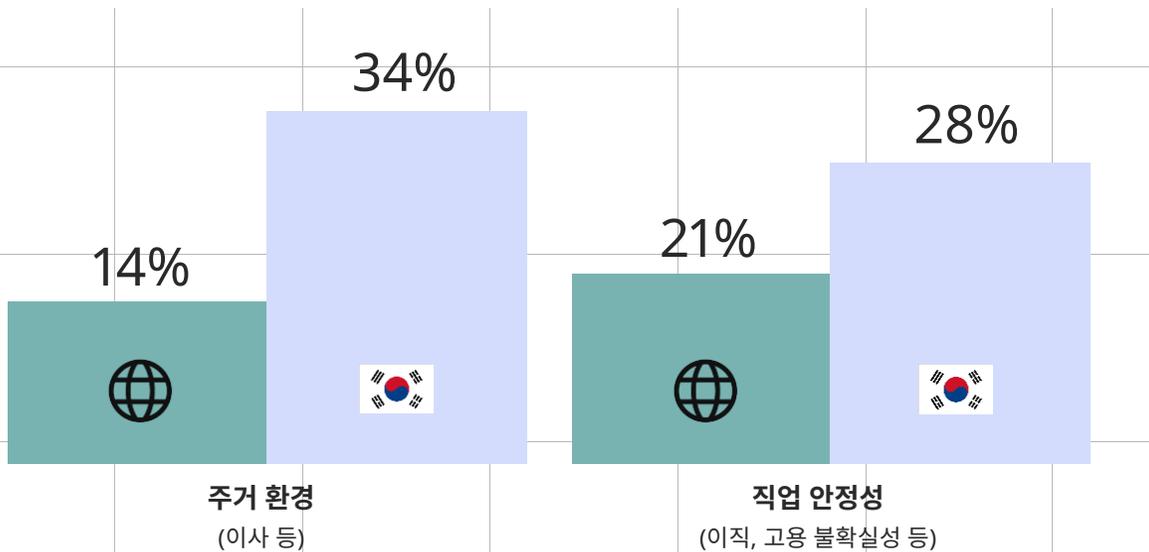
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생활 비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죠.

생활비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응답자들의 43%는 취미와 관심사에 쓰는 비용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응답했지만, 한국 응답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생계와 밀접한

주거 환경 (34%) 과 직업 안정성 (28%)

이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받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거죠.

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



집에서 무엇을 느끼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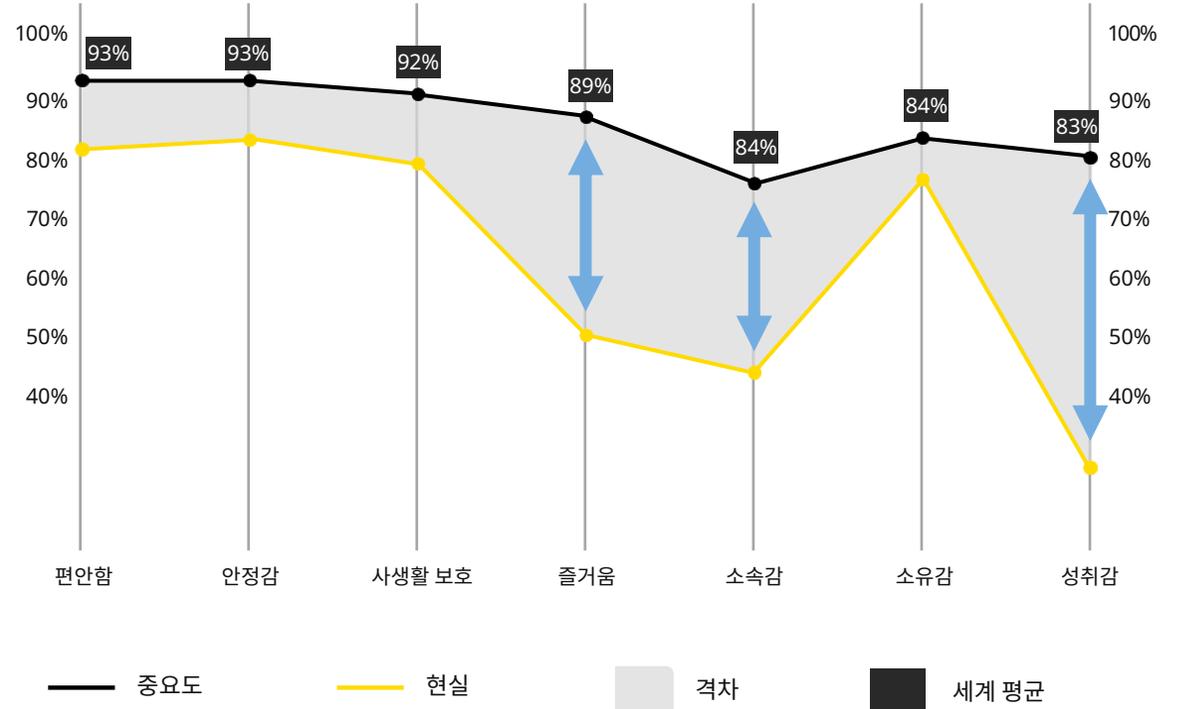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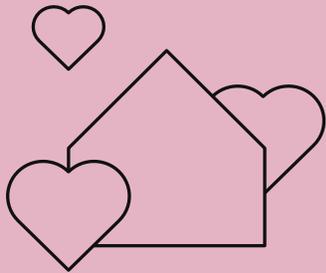
집에서의 7가지 정서적 니즈

사는 지역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집에서 충족하고 싶은 7가지 정서적 니즈가 있습니다.

바로 충분한 **안정감**과 **편안함**, 큰 **소속감**과 **소유감**, 건강한 수준의 **사생활 보호**, 그리고 **즐거움**과 **성취감**이죠. 한국 응답자들은 그중에서도 **안정감**과 **편안함**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습니다.

이 7가지 정서적 니즈의 '중요도'와 '현실'의 격차를 물었을 때, 한국 응답자들은 실제 기대하는 것보다 **즐거움**, **소속감**, **성취감**이 집에서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 특히, **소속감**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죠.

어떻게 하면 중요도와 현실의 격차를 좁혀 집에서의 정서적 니즈를 충족해 나갈 수 있을까요?



집에서 무엇을 느끼나요?

직장에서 충족하는 소속감과 성취감

특히,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충족되지 않는 **소속감**과 **성취감**을 직장에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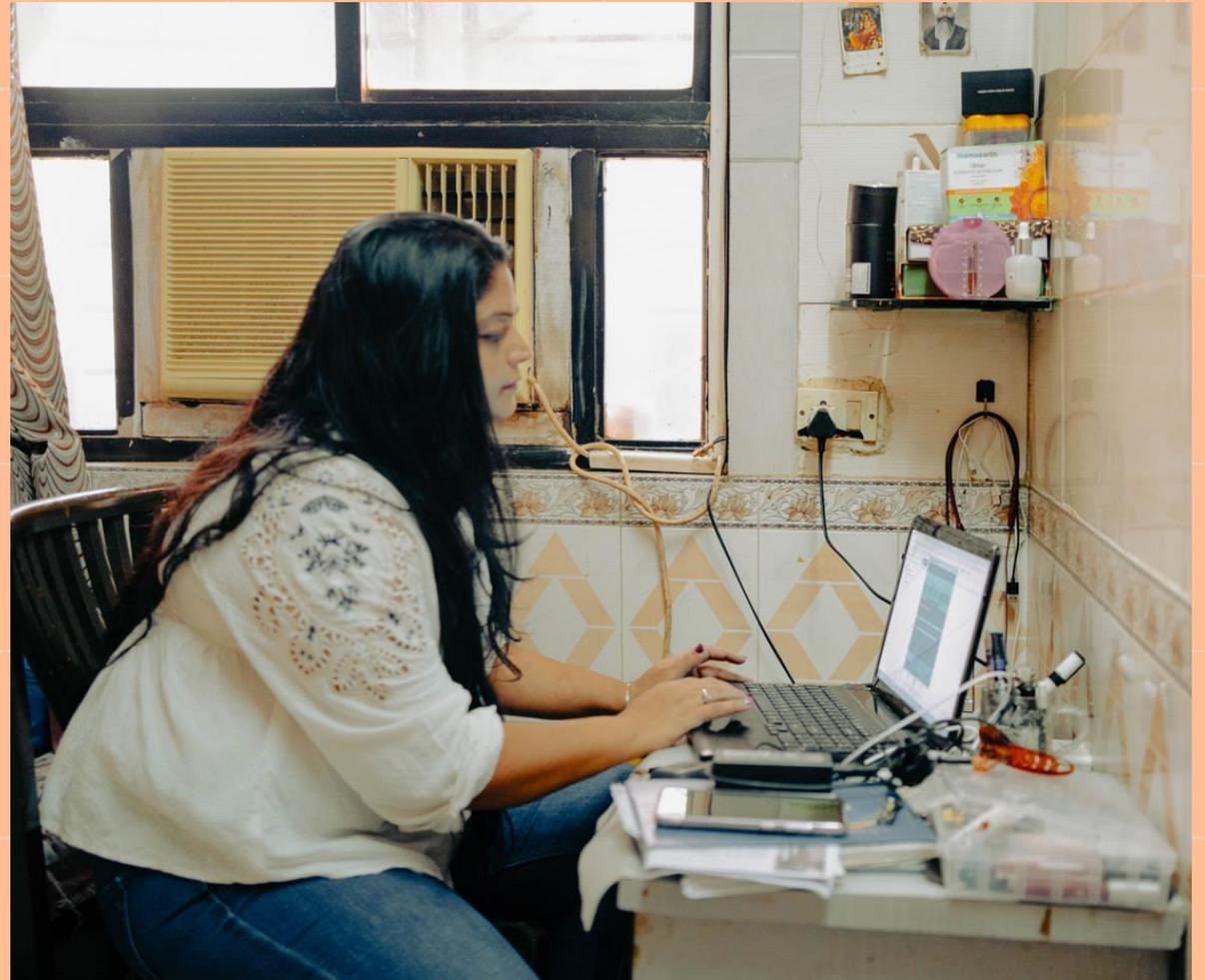
한국 응답자의 약

34% 가 직장에서 **소속감**을

47% 가 직장에서 **성취감**을 얻는다고 대답했습니다.

이는 각각 **9%**, **26%**인 전 세계 응답 결과에 비해 꽤 높은 수준이죠.

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도 더 큰 **소속감**과 **성취감**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



개성을 반영하는 집

🌐 58%

의 전 세계 응답자들은 자기 집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

한국 응답자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은

🇰🇷 56%

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

집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**1.5배** 집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, **우리의 개성과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집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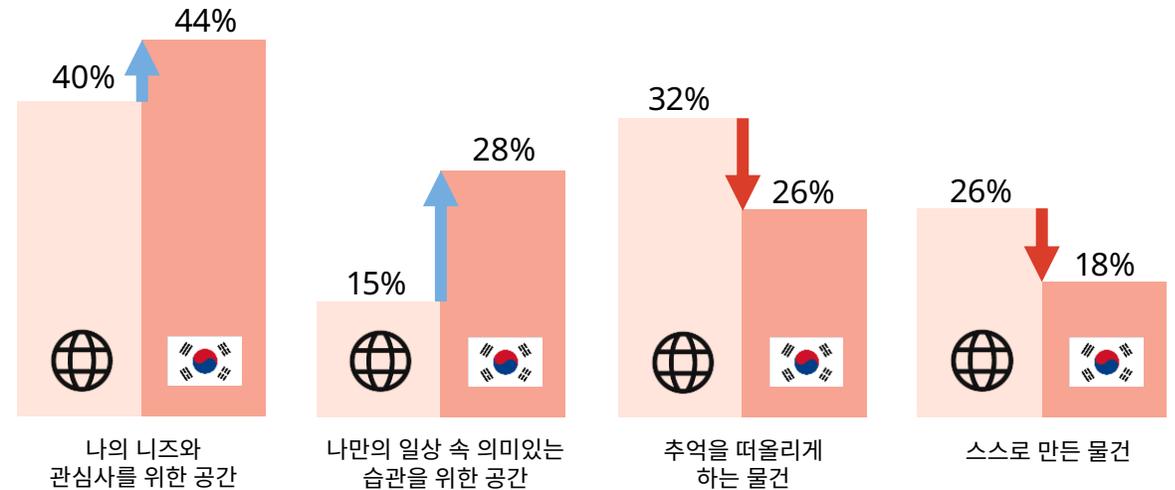


개성을 반영하는 집

정체성을 반영하는 공간의 중요성

한국 응답자의 약 **44%**는 니즈와 관심사를 위한 '공간'을 갖는 것, **28%**는 나만의 일상 속 의미있는 습관을 위한 '공간'을 갖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집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습니다.

글로벌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집을 만드는 데 있어 '물건'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, 한국 사람들은 내 정체성을 반영하는 집에서 나의 생활에 맞는 '공간'을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.





작은 변화로 만드는 큰 차이

단

16%

의 한국 응답자만이 자기 집을 정리하고 꾸미는 방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 이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나라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로, 한국 사람들이 집을 변화시키는 데 자신감이 가장 낮다는 것을 보여주죠. (전 세계 평균: 36%)

사람들은 보통 집에 변화를 주려면 수리하는 등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**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**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.

집에서 느끼는 골칫거리

나를 위한 공간의 부재

한국 응답자들은 전 세계 응답자들에 비해 집에서 **정돈되지 않은 공간**이나 **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부재**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특히, **취미생활이나 나만의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 좌절감을 느낀다**는 응답의 비중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.



집의 가장 큰 골칫거리 6가지

- 1위: 지저분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집 (25%)
- 2위: 집안일 (23%)
- 3위: 정해진 자리가 없는 너무 많은 물건 (21%)
- 4위: 물건을 넣을 공간 부족 (19%)
- 5위: 지저분함에 대한 관점 차이 (17%)
- 6위: 정돈되지 않은 공간 또는 뚜렷한 쓸모가 없는 공간 (15%)



집의 가장 큰 골칫거리 6가지

- 1위: 지저분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집 (26%)
- 2위: 집안일 (25%)
- 3위: 정돈되지 않은 공간 또는 뚜렷한 쓸모가 없는 공간 (20%) * 전 세계 3위
야외 공간 부족 (20%) * 전 세계 3위
- 4위: 집에서의 휴식 공간 부족 (19%)
- 5위: 정해진 자리가 없는 너무 많은 물건 (18%)
- 6위: 취미 생활 등을 위한 공간 부족 (17%) * 전 세계 1위



외롭지만 혼자이고 싶은 집

한국 응답자의 약

29%

는 집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

이는 약 21%가 집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다고 답한 글로벌 결과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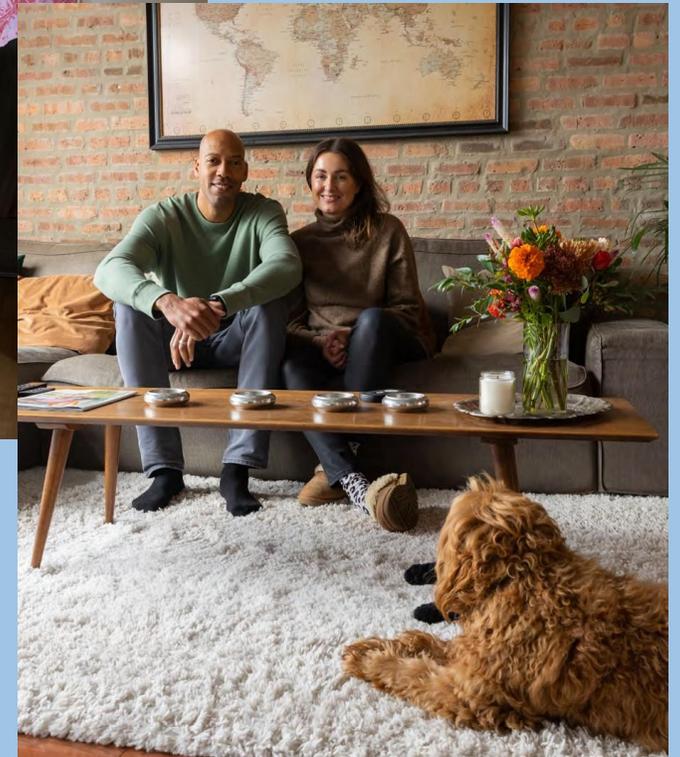
또한, 전 세계 응답자의 약 13%만이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, 한국 응답자의 약

25%

가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.

이 두 개의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 중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습니다.

집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나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겠죠.



집에 관한 영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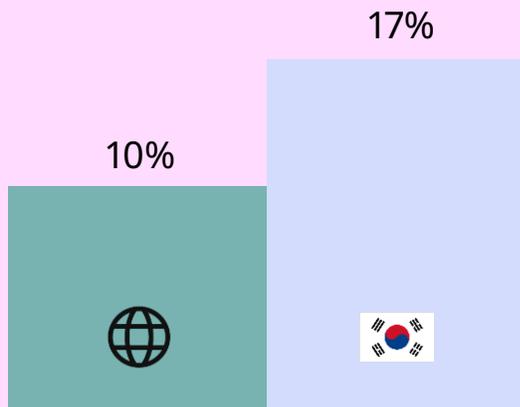
집에 관한 영감을 받는 출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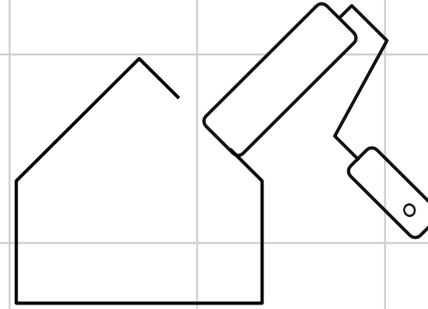
- 1위: 집수리 TV 프로그램 (24%)
- 2위: 오프라인 홈퍼니싱 매장 (22%)
- 3위: 친구 집 (19%)



- 1위: 집수리 TV 프로그램 (34%)
- 2위: 친구 집 (21%) / 가족 또는 친지 집 (21%)
- 3위: 이웃 집 (18%)



집의 변화를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영감을 받음



한국 응답자들은 집의 변화를 위해 가족, 친구, 이웃 등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집으로부터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.

전 세계 응답자보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영감을 얻는다고 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어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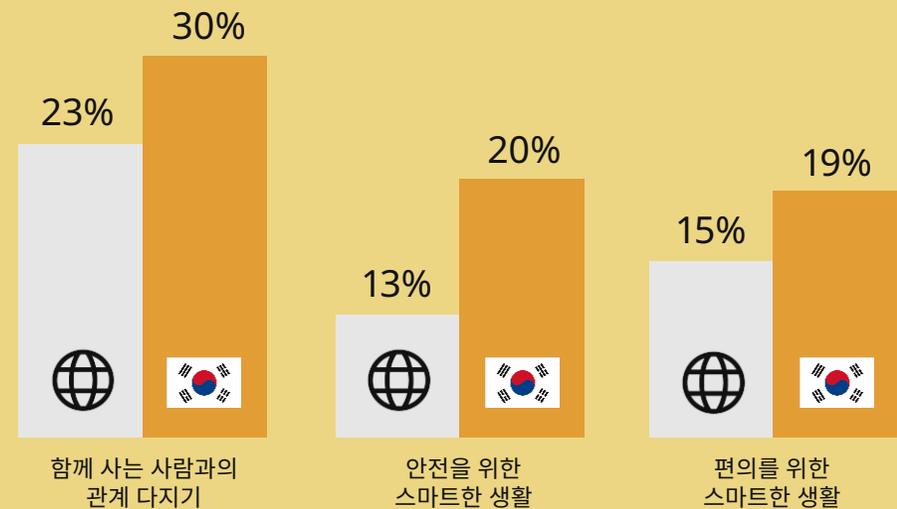
이상적인 집

한국 응답자들은 전 세계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집을 그릴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

63%

의 한국 응답자들이 이상적인 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**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**이라고 답했습니다.

또, 전 세계 응답자보다 **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**를 다지거나 **편의, 안전을 위해 '스마트한 생활'을 하는 것을**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



조사 결과 및 데이터 관련 문의

Angie Shin (angiehaejeong.shin@ingka.ikea.com)

Heebong Lee (heebong.lee@ingka.ikea.com)

커뮤니케이션 관련 문의

Sungsook Kim (sungsook.kim@ingka.ikea.com)

Yoojung Hahn (yoojung.hahn@ingka.ikea.com)

